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34호(97/10/15)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 제2회 인권영화제 고난의 행군

- 서울 19일로 마무리, 23일부터 지방영화제 돌입-

이번 제2회 인권영화제는 당국의 집요한 탄압 가운데 치뤄졌습니다. 매일매일 경찰이 상영장소인 학교를 침탈하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학교측과 마찰을 빚지 않는 속에서 상영장을 확보하고,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했습니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들어 민간 영화제에 대한 계속된 탄압(퀴어 영화제의 무산, 독립영화제·시민비디오축제의 파행 상영 등)과 진보운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노골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일정을 고수하는 것이 인권과 전체 운동에 기여하는 일이라 판단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영화제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끝내 폐막식도 치루지 못하고 종기중단하게 되었던 인권영화제는 이제 지방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방도 벌써부터 서울과 같은 양상의 탄압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인권영화제를 그간 자료들을 통해 중간 결산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인권영화제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서>

### 제2회 인권영화제-서울 조기 종결에 대한 입장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제2회 인권영화제-서울의 폐막 하루를 앞두고 본 영화제의 조기 종결을 선언한다.

이런 우리의 결단은 계속되는 경찰의 압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비열하게

도 인권영화제의 공동주관 단체인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인권영화제의 조기 종결을 전제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비열한 조건을 내세웠으며, 이를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 안은 것이다.

본 영화제가 조기 종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당국과 경찰, 학교 당국의 압력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화제 상영장소에 대한 계속된 압력은 결국 본 영화제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결국 어렵사리 확보된 홍익대학교마저 교육부와 경찰 등 정부 각 기관의 파행적인 압력에 무릎을 꿇었으며, 이에 따라 상영장소 폐쇄,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해 영화제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학교는 이에 더해 경찰과 교육부 등 기관의 다그침에 의해 본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현주건물침입혐의로 고소하고,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월 1일 새벽, 홍익대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인권영화제 공동주관자인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임성욱 군등 2명을 연행, 구속하게 된 것이다.

그런 후에도 경찰은 정문 주위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검문을 함으로써 영화제 관람객이 발길을 돌리도록 만들었으며,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발전기를 압수하고, 기타 영화제관련 기자재와 물품을 압수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상영 일정과 장소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이끌어온 인권영화제는 10월 2일까지 6일동안 연인원 4천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우리는 대학의 존재의의를 망각한 대학과 학생을 백치로 만들려는 교육부의 대학당국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전심의회제도와 이를 근거로 인권영화제마저 탄압하는 공안당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항의투쟁으로 인해 생겨날 제반 문제는 정부당국과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입장과 이후의 일정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본 영화제의 조기 종결이 정부와 경찰당국의 외압에 의한 중단임을 분명히 밝힌다.
2. 학생들을 불모로 저지르는 경찰의 작태는 민중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것이며, 학원에 대한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대학이 교육부의 노예로 전락한 처지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주성을 지키면서 이 사회의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4.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제도를 철폐하라.
5. 우리는 인권영화제 기간 중 자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연행, 구속된 임성욱 군등의 학생들과 이후 인권영화제와 관련하여 구속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이후의 일정>

1.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명동성당에서 항의상영한다. 여기서는 10월 4일 상영하지 못한 작품을 위주로 상영한다.
2. 오는 10월 5일(일) 오전 10시부터 종로 낙원동에 위치한 민예총 강당에서 본 영화제 후원회원을 상대로 대작 '쇼아'를 하루 종일 상영한다. 민예총 전화 743-5872, 743-6618
3. 앞으로 서울 시내 교회, 성당, 학교 등 3,4 곳을 선정하여 인권영화제 출품 작품들을 연장 상연한다.
4. 10월 20일경부터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진행될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1997년 10월 3일

### 제2회 인권영화제-서울 집행위원장 위원장 서준식

## === 제2회 인권영화제 탄압 일지 ===

- 9월 25일; 상영장소였던 기독교연합회관측 경찰, 문체부 등의 압력으로 장소 대여 불가 통보
- 9월 26일; 홍익대측 불허입장 공식전달
- 9월 27일(1천2백여 명 관람); 마포구청 공연 중지명령서 발송, 홍익대측 개막식 장소인 와우관을 학교 직원들을 동원 봉쇄, 오후 4시경 임시 상영장으로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개막초대작 <새의 노래>를 상영하려는 순간 전원 차단, 발전기 가동으로 상영재개, 3 장소에서 상영
- 9월 29일(6백여명 관람); 홍익대 서준식 집행위원장 고소, 경찰측에 시설물보호요청  
홍익대학생처장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앞으로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 불허 재통보 공문 발송
- 9월 30일(5백여명 관람); 마포경찰서, 오후 4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음
- 10월 1일(7백여명 관람); 새벽 1시45분 홍익대학교 압수수색 임성욱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및 총학생회 간부 1명 연행, 영화제 관련 기자재등은 압수 못함, 마포경찰서 서준식(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장) 씨 앞으로 8일 오후4시까지 출석요구서 우편으로 발송
- 10월 2일(1천여명); 오후 6시경, 발전기 압수, 오후 11시경, 홍익대 입구에서 마포서 형사등 40여명 집행위원회를 막고 마포서로 연행 기도, 강력한 항의로 무산됨.
- 10월 3일(1천7백여명); 학교측의 상영장 봉쇄와 단전, 발전기 가동하여 상영.  
집행위원회, 마포경찰서측이 총학생회에 전달한 학생회 간부 5명에 대한 인권영화제 관련 입건 통보를 듣고 인권영화제 조기 중단시 조사치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폐막 하루 앞두고 조기 중단 결정, 성명서 발표
- 10월 5일; 민예총 강당에서 오전 10시 20분부터 밤 9시까지 쇼아 전편 상영, 오후 10시까지 토론회 진행. 종로구청에서 상영중지 명령
- 10월 6일; 명동성당 일대에서 경찰, 오전부터 오후 7시까지 불심검문. 오후 7시부터 항의상영 시작, 7시10분부터 8시 40분까지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 상영. 중구청, 상영중지 명령 (경찰은 매일 상영장소 입구에서 불심검문하여 학생·시민의 관람을 제지함, 영화제측 홍익대에서 매일 2~3곳 상영장소 확보 상영 강행, 다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  
10월 9일까지 명동성당에서 항의상영 계속
- 10월 8일; 서준식 대표 마포경찰서 출두, 7시간 가량 조사받음. 조사내용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음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것이었음. 곧 검찰에서 소환 조사할 예정
- 10월 17일부터 19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연장상연

## 제2회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 일정

\* 일정과 장소는 지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 문의: 032) 761-0861, 762-5173

△ 기간: 10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 장소: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회의실/소강당

△ 주관: 민예총 인천지부 영화위원회/인천영상집단/인하대 총학생회 등

■ 수원 문의: 0331) 213-2100

△ 기간: 11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 장소: 대한성공회 교동성당

△ 주관: 수원 민예총/다산인권상담소/수원시민광장 등

■ 광주 문의: 062)529-7576

△ 기간: 11월 12일(수)부터 15일(토)까지 △ 장소: 전남대 VTR실

△ 주관: 광주인권지기/광주 YMCA/조대민주동우회/전남대민주동우회/5.18유족회 등

■ 안양 문의: 0343)44-2876

△ 기간: 11월 7일(금)부터 9일(일)까지 △ 장소: 가톨릭 안양근로자회관 강당

△ 주관: 가톨릭 안양근로자 회관/안양사랑청년회/안양 환경운동연합/안양 경실련 등

■ 전주 · 군산 문의: 0652)76-1253

△ 기간: 11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전주), 11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군산)

△ 장소: 중앙성당(전주), 오룡동성당(군산)

△ 주관: 정의평화정보센터/온고을 영화터 등

■ 구리 · 남양주 문의: 0346)69-9134

△ 기간: 11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 장소: 미정

△ 주관: 구리 · 남양주 시민모임/소극장 아홉마을/전교조 구리 · 남양주 지회 등

■ 대구 문의: 053)742-7456

△ 기간: 11월 15일(토)부터 23일(일)까지 △ 장소: 열린공간 큐

△ 주관: 열린공간 큐/환경운동연합 대구지부/참길회/대구경북연합 등

■ 제주 문의: 064)22-2701

△ 기간: 11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 장소: 예인 아트홀

△ 주관: 민주주의민족통일제주연합/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등

■ 원주 문의: 0371)45-2355

△ 기간: 11월 24일(월)부터 30일(토)까지 △ 장소: 원주 가톨릭센터 강당

△ 주관: 원주 민예총, 원주민주청년회, 원주 환경련 등

■ 마산 · 창원 문의: 0551-61-4807

△ 기간: 11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 장소: 창원대학교 소강당

△ 주관: 마창양심수후원회, 창원대총학생회, 마창연합 등

## 인권영화제 뒷 얘기, 이모저모

△ 이번 홍익대 인권영화제에는 하루 평균 10명씩의 자원봉사자가 결합되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교육실의 실습과 교육을 거쳐갔던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교육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홍익대 학생들의 자원봉사자들의 결합이 매우 부진하였던 것에 비한다면 이들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인권영화제는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이번에 번역과 자막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 중에는 컴퓨터 통신과 언론 기사를 보고 자발적으로 찾아와준 분들이 다수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밤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열정이 오늘의 인권영화제를 있게 했습니다.

△ 또, 홍보를 전적으로 맡아준 서울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 판화전을 준비한 서울대 미대 서영화과 학생들, 사진전을 준비한 사진팀, 자막작업을 위해 밤샘작업을 한 푸른영상을 비롯한 영화팀, 단편인권영화를 만든 영화팀, 인권영화제 탄압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한 단편영화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권영화제를 위해 헌신한 결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인원 7천명의 관객을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 탄압 속에서도 인권영화제 일정을 고수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격려전화와 팩스, 컴퓨터 통신상에 격려 통신문이 답지하였습니다. 심지어 외신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대통령 앞으로 개인적으로 항의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중 익명으로 들어온 팩스 전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시대를 거꾸로 사는 거 같은 마음이 들어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세상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곳곳하게 이겨내십시오. 계속 지켜보며 구체적인 함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자랑스럽습니다. 결코... 결코 굽히지 마세요.”

△ 현장 진행팀은 매일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영상 기자재를 고볼치느라 홍익대인들도 모르는 으스스한 곳을 거의 다 파악해 놓았는데, 심지어는 배수로 뚜껑 밑에까지 기자재를 고볼치기도 했지만, 언저시 풀밭에 던져놓기도 했고, 자판기 지붕 위에 올려놓기도 해 경찰의 헛점을 찔렀죠. 이런 과정에서 학교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도 현수막 하나만 빼앗겼지만, 막판에 발전기를 하나 압수 당했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번덕스러운 경찰들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묘한 승리감마저 맛볼 수 있었죠.

△ 중간 결산결과 수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통에 이를 메꿀 방법으로 고심중. 쇼아를 후원회원들에게 배급해서 생긴 이익금으로 이를 메꾸자는 의견도 있지만, 자막작업의 귀신이 된 류은숙씨를 팔아서 충당하자는 의견까지 의견이 분분.

△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이던 10월 15일, 독립영화인들이 인권영화제와 퀴어영화제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현장에서 벌였다는데, 이번에 부산에서는 인권영화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현지 영화팬들이 마구 항의하는 통에 실무자들이 곤혹스러웠다고.

△ 벌써부터 3회 인권영화제를 고민하는 서대표,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글썽 그건 두고 봐야 할 듯...

\*\*\*\*\*

# 사 / 업 / 보 / 고

(97년 9월 셋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

## 11월 5일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행사 추진키로

### 1. 행사의 취지

지난 93년 9월 7일 세계 최초의 인권팩스전문신문 <인권하루소식>이 탄생한 이래 오는 11월 5로 지령 1천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정부의 탄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하루소식> 김영삼 정부 하의 인권 상황을 줄곧 추적해왔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실 인권운동사랑방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역사는 바로 <인권하루소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한국 인권운동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전문화에 기여해온 우리들의 노력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권하루소식>의 지령 1천호를 맞아 사무국에서는 조출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을 장식했던 인권피해 사건들의 당사자들을 초청, 그들의 목소리로 '문민정부'의 인권실태를 증언토록 하는 이벤트를 준비중입니다. 대선이 가까워 오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 하나 언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 하의 주요 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낸다면 의미는 충분할 것이란 판단에서 이번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천호 기념 기획기사로 문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총정리하는 시리즈를 게재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와 기획 기사를 통해 현재의 인권문제를 짚어보고 차기 정권의 인권과제, 인권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행사 기조와 방향

1) 김영삼 정부 하의 대표적인 인권피해자들의 목소리로 문민정부의 인권문제를 직접 증언토록 한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에 소개되었던 사건의 당사자들을 모아냄으로써 자연스럽게 현 정부의 인권문제를 진단하는 계기가 된다.

2) 이를 통해 <인권하루소식>의 존재 의의를 찾고, 이후 <인권하루소식>의 방향성을 공유한다. 자연스럽게 <인권하루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든다.

### 3. 행사 내용

1) 일시: 1997년 11월 5일 오후 6시-8시

2)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미정)

3) 제목: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  
목소리 모아 인권을 주장하라(가칭)

4) 내용:

1부: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식  
- 발행인 인사/편집장 소개/축사/축하메세지 낭독/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영상물 또는 OHP) 등

2부: '문민정부' 인권피해자 대회

- 대표적인 인권피해자 증언(사건당 3분)
- 영상으로 보는 문민정부 인권상황
- 인권피해자 결의문 채택

3부: 다과회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영·자문위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행사가 무사히 치뤄질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 업무 보고>>

사무국이 인권영화제 전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투입되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10월 19일의 향린교회 연장상영을 마지막으로 사무국

은 원래의 업무에 복귀하므로 그동안 다소 소홀히 했던 인권운동사랑방 사업에 다시 매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홍보실: 1천호 기획기사 준비 바빠

홍보실은 오는 11월 5일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기획 기사를 준비하기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에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경향과 중심적인 사안들을 정리하여 기획 시리즈로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김영삼 정부 하의 인권상황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대표와 사무국장이 함께 하고 있으나, 자료를 찾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인지라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인권시평을 게재하겠다는 대학 학보사가 서원대, 홍익대, 목포대, 중부대, 아주대 등 6개 대학으로 늘어나 조금은 사랑방 재정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정보자료실: 97년 국감 자료 모으기에 주력

다시 국감의 계절이 돌아와 정보자료실에서는 9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인권자료들을 모으기 위해 분주히 국회의원회관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자료중 인권자료들을 각 상임위별로 확보하여 자료집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주문제작할 자료집이 필요하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공회대학교와 서강대 학생들이 자료실에 자원봉사를 대거 신청한 상태입니다. 각 학교 10명 전후의 이들 학생들은 학교 강의과목중 사회봉사라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사회봉사 단체로 사랑방을 선택한 것이며, 그렇잖아도 자료 정리에 인력이 필요하던 차에 이들 학생들을 정보자료실에 배치하여 자료 정리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 교육실: 인권교재 작업 시작

현재는 6명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 중입니다. 한편, 그동안 미뤄져 왔던 교재사업은 인권영화제 기간중이던 9월말부터 연세대학교 교육동아리 '열음'과 함께 시작하여 지금 교재내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류은숙 교육실장과 열음이 매우 1회씩 만나 교재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시험도 거치면서 재수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 대중적인 교재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그중에서 인권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실장은 오는 10월 30일과 11월 7일 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참여사회 아카데미에 강사로 나가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실장은 지난 10월 11일 홍사단에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가졌습니다.

#### ■ 총무부: 11월 파리 유네스코 회의 두명 파견

극우잡지 <한국논단> 8월호에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왜곡한 기사를 문제삼아 민변,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과 함께 9월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교육실장과 총무를 파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내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아동권과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이후의 행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연대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가칭)문화정책연대에 참가, 인권영화제를 비롯한 문화탄압과 이후의 문화적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7일 열린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과거청산국민위원회의 활동방식과 내용, 소속 단체들의 결합 정도로는 과거청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0월말까지 각 단체에서 조직의 존속, 해체, 개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11월초 결론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 ■ 동정

· 서준식 대표: 기자협회와 민언협이 공동주관하는 통일언론상 영상부문 심사위원으로 서대표가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인천 가정동 기도의 집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 총회 참석, '인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습니다.

·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이덕우 변호사가 지난 10월 초 귀국하여 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재개하였습니다.

· 백승헌·조광희·정연순 변호사가 박성민·송두환·김응조 변호사와 합동으로 범부법인 한걸을 만들어 새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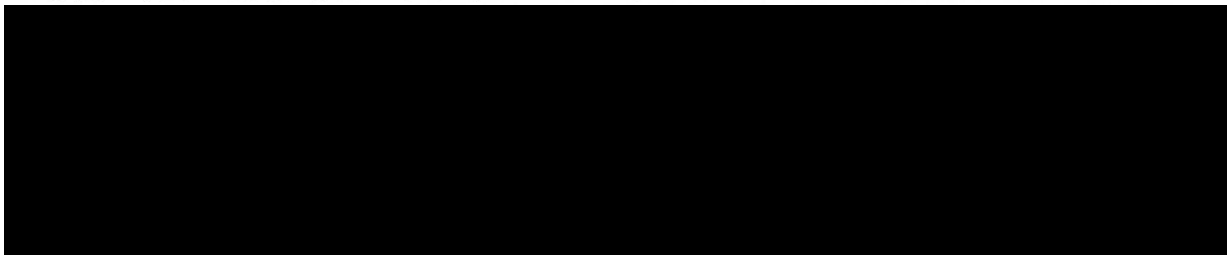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4의 1 우서빌딩 45층  
대표전화: 3488-3500, 3471-4004

**97년 9월 재정보고**  
(97년 9월 16일 - 10월 15일)

전기이월: -546,026원

수 입		지 출	
회비	2,747,000	활동비	3,270,000
구독료	2,835,240	발송비	463,260
사업수익	274,850	사무비품	92,900
기타수익	205,959	사무실유지	625,450
인권영화제 회수금	1,851,260	자료구입	48,000
후원금	150,000	식대(야근)	368,160
		전화요금	963,250
		사무기기	510,000
		복사비	91,830
		기타	64,500
<b>수입총액:</b>	<b>8,064,309</b>	<b>지출총액:</b>	<b>6,497,350원</b>
<b>최종결산:</b>	<b>1,020,933원</b>		

<9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운영·자문위원 여러분, 밀린 회비 없으세요?

줄곧 보내주시는 회비로 사랑방이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시는 회비는 위에서 밝힌 지출 내역대로 쓰여집니다. 회비 지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